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49)

師臣者帝 사신자제

신하를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은 제왕이 된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세상이 시끄럽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면 점잖은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조차 믿기 어렵다. 그것도 앞으로 언필칭이 나리를 잘 다스려 보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는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실제 그대로 전하기가 어려운지 예컨대 ××끼라고 하지만 듣거나 보는 사람이 모를 리 없는 단어다. 그러한 단어야 막 되어먹은 사람들이 다룰 때 쓰는 말이지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사람의 입에 올릴 말은 아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말하다 보면 흥분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감정을 충분히 순화시켜 표현하여야 한다. 그것이 배운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러한 상소리를 거칠어 하는 사람을 보면 그 부모가 어릴 때 어떻게 길렀을까 궁금하다. 혹 부모가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다면 그들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쳤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그 부모나 스승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겠지만 그는 배울 스승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막 되어 먹고 자라지 않았을까?

자치통감에는 후한(後漢)을 건국한 유수(劉秀)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가 이미 황제에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 전국을 통일하지 못하였을 때에 하급관리에 속하는 연리(掾吏)가 유수에게 '신이 듣건대 신하를 스승으로 생각하신 분은 황제가 되었고, 신하를 손님으로 대접한 분은 폐자(霸者)가 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한 일이 있다. 유수에게 당신이 진짜 황제가 되고 싶다면 당신 휘하에 있는 신하를 당신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혹 그보다 못한 폐자(霸者)라도 되고 싶다면 휘하에 있는 신하를 손님처럼 예의를 갖추어 대접하라고 충고한 것이다.

사실 이 시기는 왕망(王莽)의 신(新)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난 많은 군사 세력들이 각자 황제 혹은 왕을 자칭하는 사람이 여덟이나 되었던 시기가 좀 지났었다. 그리고 좀 정리가 되면서 유수가 동부지역을 거의 장악하였고, 서부지역은 공손술(公孫述)이, 다시 그 북쪽 감숙(甘肅) 지역은 외효(隗囂)가 차지하여 세 세력이 각축하던 시기였다. 세 사람 가운데 누군들 다른 두 세력을 병합하여 완전한 제국(帝國)을 건설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는가? 각자가 가진 온갖 재주를 다 끌어 모아서 다른 두 세력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었다.

셋 가운데 세력이 제일 약했던 외효는 마침 왕망 말년에 왕망을 피해 북쪽으로 도망하였다가 외효에게 와 있던 마원(馬援)을 이용하여

다른 두 세력인 공손술과 유수의 사람됨과 능력이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경쟁에서는 상대방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외효의 부탁을 받은 마원은 바로 공손술에게 갔다. 사실 공손술과 마원은 어릴 적에 같은 마을에서 자란 친구였다. 그러니 마원은 공손술이 비록 황제에 오르기는 했어도 자기를 만나면 친구 대하듯 정말 반가워하며 맞아 줄 것이라고 상상하였지만, 그렇지 않았다. 공손술은 황제에 올랐던지라 옛 친구를 만나면서까지 위의(威儀)를 갖추고서야 마원을 맞았다. 마원은 속으로 '이 경쟁의 시대에 인재가 온다면 밥을 먹다가도 벨어버리고 뛰어나와 손을 내밀고 계책을 논의하려 하였던 전한을 세웠던 유방(劉邦)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였다. 기대에 너무 미치지 못하여 마치 어린 아이들 놀이 하는 것 같아 보였다.

게다가 당시에 유행하였던 도참서(圖讖書)

를 보고 거기에 장차 황제가 될 것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도참서에 나오는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공손제(公孫帝)라 새겼다. 가짜로 만든 것을 내세워 하늘로부터 부명(符命)을 받았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공손씨 이외의 사람은 믿지 못하여 높은 자리는 모두 공손씨에게 주었고 이슬을 맞고 전장(戰場)

에서 싸우는 사람을 젖혀 두고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내려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손술의 신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었으나 마원은 공손술에게서 성공할 가능성을 못 찾았다.

마원이 다시 유수에게 갔다. 유수는 이미 황제가 되었음에도 일반 사대부가 쓰는 책(幘)을 쓰고 마원을 맞았다. 유수는 면식이 없는 마원이 있지만 의심하지 아니하고 환대하자 마원은 유수에게 '내가 자객(刺客)이거나 혹은 간사(姦邪)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리 환대하십니까?'하고 물었다. 그러나 유수는 티연하게 '그대는 자객이 아니라 세객(說客)이지요.'라고 하면서 극진히 대우하였다. 그리고 외효에게 돌아가는 길에도 호위를 불여 배웅하였다.

물론 외효에게 돌아온 마원은 외효에게 유수에게 귀부하라고 권고하였지만 듣지 않자 후에 마원은 유수에게로 와서 유수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다. 유수의 인품이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극진히 스승처럼 대접하므로 자기에게로 오게 한 것이었다.

그러면 유수는 또 이미 그에게 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을까? 한 번은 대사농(大司農)인 강풍(江鴻)이 유수에게 사예교위(司隸校尉)를 시켜서 재상인 삼공(三公)을 감독하게 하라고 견의했다. 재상이 행여 권력을 남용하여 유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던 모양이다. 조직을 관리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을까?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사공부(司空府)의 연리(掾吏)인 진원(陳元)이 상소문을 올렸다. "신이 듣건대 신하를 스승으로 생각하신 분은 황제가 되었고, 신하를 손님으로 대접한 분은 폐자(霸者)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왕(武王)은 태공(太公), 강태공(江太公)을 스승으로 삼았고, 제(齊) 환공(桓公)은 이오(夷吾, 관중)를 중부(仲父)라고 하였으며, 가까이로 고제(高帝, 유방)께서는 상국(相國)을 우대하는 예의를 베푸셨고, 태종(太宗, 문제)은 재보(宰輔)에게 권력을 벌려주었습니다."

진원은 유수에게 한고조 유방이 상국인 소하(蕭何)에게 보검을 차고 신발을 신고 전각에 오를 수 있도록 대우했던 것과 문제(文帝)가 재상인 신도가(申屠嘉)에게 권력을 주어 황제의 측근에게 별을 줄 수 있게 하였던 것을 예로 들면서 황제로서 신하인 사람을 어떻게 스승처럼 대하는지를 제시(提示)한 것이다.

진원은 비록 연리라는 하급관원이었지만 유수는 스승의 말처럼 받아들였다. 이러한 태도가 유수로 하여금 나머지 세력인 공손술과 외효를 제압하고 후한(後漢)의 기초를 닦게 하였다. 다른 사람의 수하였던 마원을 스승처럼 모셨고, 하급관리인 진원을 스승처럼 모셨던 것이 유수의 힘이 되었다.

사람이 살면서 스승을 두지 않은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여도 모자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유비가 제갈량을 삼고 초려(三顧草廬)했다는 고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조조나 손권에 비하여 가장 나쁜 조건을 가지고 있던 유비가 그래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정족(鼎足)을 이루 수 있었던 것도 제갈량을 스승처럼 대우했던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스승도 없는 사람처럼 입에서 상소리가 나오니, 그들의 말로(末路)는 보지 않아도 짐작되어 연민(憐憫)을 느껴진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우리 정치권에서도 스승을 찾아다니고 또 그의 말을 무섭게 받아들이는 정치인이 나올까?

내방가사 전승 보전을 위해 능동재사 등에서 촬영



김남교 작가



추원루 앞에서 내방가사팀과 권오의 사무국장

안동문화원(원장 권석환)은 내방가사(內房歌辭)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 안동권씨 능동재사(陵洞齋舍)와 추원루(追遠樓)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였다.

8월 8일 오전 11시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골 안동권씨 능동재사(중요민속자료 제183호)에서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안동문화원 구경희 사무국장, 내방가사 김남교 작가 겸 낭송자, 촬영팀 등 모두 10여명이 참석, 촬영을 하였다.

이날 아라스튜디오(ARA STUDIO, 안동시) 촬영팀은 내방가사 김남교 작가 겸 낭송자(77, 안동시 서후면 이개2길)가 능동재사와 추원루에 올라서면서 감상에 젖은 모습들을 촬영하기도 했다. 김 작가는 안동권씨 한테 시집살이가, 결혼가 등 여자의 일생 변천사를 글로 옮겨 낭송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내방가사를 좋아하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안동시는 작년 12월 문화체청 주관 '2022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공보사업'에서 안동내방가사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조사, 연구, 영상, 책자, 기록화 등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보도부장 권영건)

2022년 안동권씨능우회 8월 월례회 개최

2022년 안동권씨능우회(陵優會: 회장 권기현) 8월 월례회가 8월 9일 저녁 6시 30분 안동시 안기천로 '이조식당'에서 개최하였다. 두 달 만에 한 번씩 격월제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 능우회원 33명 가운데 21명이, 능곡회 회장단 3명 등 모두 24명이 참석하였다.

권오갑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 회장인사, 경과보고, 기타토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기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아프든 병도 이제 완전히 완쾌되어 경제활동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며 "회원 여러분도 겸기운동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까지 병마와 싸웠던 고통을 벗어던지고 기분 좋은 이야기로 인사말로 대신했다. 회원들은 감사의 표시로 험찬 박수를 보냈다.

권오갑 사무국장은 지난 5월 21일 능곡회원 및 능우회원이 경기도 행주산성을 답사하는 등 2건을 보고했다. 이어 현재 능곡회원인 권오율씨(전 국회의원)와 권영목씨(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지사) 등 두 회원이 나아가 만 65세가 됨에 따라 능우회에 가입할 예정인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능우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 두 회원은 오는 10월 월례회 때 능우회에 입회시키기로 했다.

기타 토의에서 능곡회 권오성 회장, 권태형 부회장, 권용철 사무국장 등 3명 가운데 권오성 회장이 인사말을 한 후 "오는 8월 27일 오전 10시 안동시 남후면 무릉유원지에서 능곡회 주최 복회(伏會)를 개최하니 능우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 드린다"고 말하고 "아울러 경품도 많이 준비 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은 간고등어정식으로 차렸으며 후식은 안동식혜와 수박이 나와 정답을 나누다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안동권씨 '종보 보내기 운동' 전개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정신문화를 함양하는 역사적인 자료로 과거, 현재, 미래를 등대와 같이 비칠 것입니다. 대종회에서는 이 소중한 종보를 100만 족친 여러분께서 구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방안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보 구독자 수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오니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과 받는 사람 주소를 대종회로 보내주시면 받은 즉시 전국 방방곡곡 안동권문의 문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만 송금할 경우 대종회에서 대상자 선정)

이 운동은 故 권태강 대종회 고문(전 검교공파회장)께서 별세하시기 직전에 제안하시고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대종회에서는 故 권태강 고문의 유지를 받들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오니 100만 족친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3부까지는 부수당 30,000원. 5부부터는 부수당 20,000원(예: 10부 20만원, 50부 100만원)

◎ 입금 계좌번호 : 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농협 317-0009-7471-41, 국민은행 033237-04-006941

◎ 연락처 :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